

속보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므로 그를 사 람중의 왕이라 하네. 생각을 다스리고 몸을 길들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이룬다. (法句經·출처 130절)

제 1046호 (주간) 1990. 4. 25. 1995. 10. 13. 제 3 종우편물(가)급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 4월 25일 (수요일) 【1】

노조 쟁의발생 신고로 "진통예상"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정서' 재단 거부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8차교섭이 전면파업의 '변수'

지난6일자로 학교와 노조측이 공식합의체결한 '90년도 직 원노조 임금협정서'를 재단측이 거부함에 따라 노조가 이에 항의하는 쟁의발생신고서를 지난 23일자로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구청에 접수시키고 이날 3일부터 전면파업을 예정 하고있어 학내에 큰 파문이 예 상된다.

지난달 16일 예비모임을 시 작으로 총7차례에 걸친 학교당 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결했던 임금협정서에서는 △89년 대비

정률9.8%인상 △분봉 2만원인 상 △기초급의 금양보조비 2인2 천원에서 8천원인상 △사무직 평급1만원, 기능직평균4천7백 원의 호봉간의 격차를 평급단 원수준으로 줄이는 호봉체계개 선안등을 최종 체결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타워호텔 에서 개최된 재단예산심의 소 위원회는 학교당국과 체결된 노조임금협정을 무시한채 90년 도 예산책정시 인건비를 89년 대비 11.05%인상만을 결정, 학 교측과 노조사이에 체결된 협

정자제를 부인하는 결과를 빚 었다. 이는 예산 승인권을 재단에 서 갖고 있는 현행 법체계하에 서 사용자 대표로서의 총장 권 한이 예매한 실정으로 선 예산 책정, 후 임금협정체결이 이뤄 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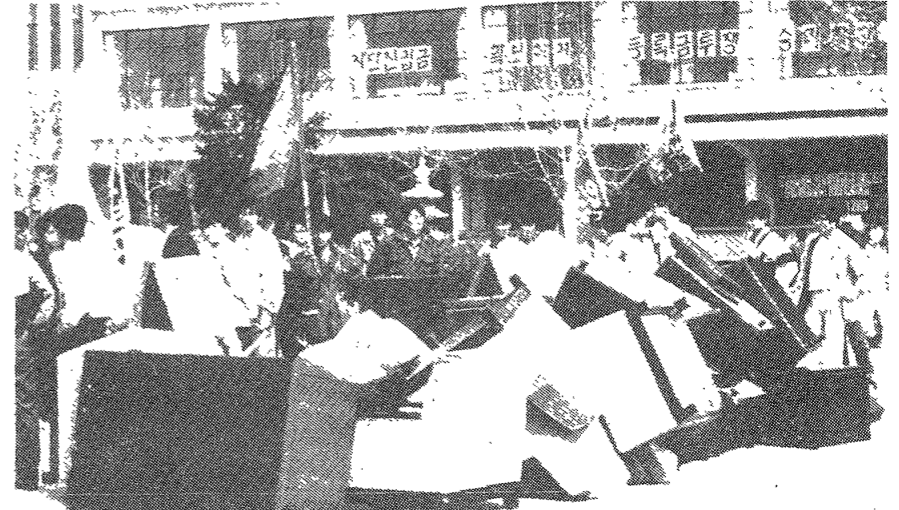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단체협상에서는 예산승인을 조건으로 명시해서 체결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서 합의체결했던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재단 예산심의소위에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률 9.8% 인상 및 분봉1만원 지급 등 일부만 반영되었다.

이러한 재단측의 예산책정이 있은후 노조측은 학교측과 지난 19일 오전11시30분 행정대 학원회의실에서 7차협상을 시도 했으나 학교측은 "재단이사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호봉체계개선안등에 문제가 있 음을 지적, 합의 내용을 반복 해 회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따라 노조는 같은날 오후 2시 1백78명의 노조원이 참 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비상

총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결 련에 대한 쟁의여부결정"을 안 건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총 투표자 1백66명중 파반수가 월 인남는 1백49명의 찬성표를 얻 어 가결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지난 23 일부터 이날 2일까지 열흘간의 냉각기간을 거친후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한편 노조측은 "학교당국과 오는 27일 호봉체계개선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재개해 사 태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0학년도 1학기등록금협상이 아직도 완결되지 못하고 지난18일 '등록금추징보고 및 1학년자치협의회 결과보고대회'가 열려 부총장·총무처장실 집기를 끌어내 재단혁신과 학자투의 승리를 다짐했다.

4·19동국인 등산대회 마쳐 1천여명 참가... 열사들의 참뜻 기려

4·19기념 '제2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20일 2백80명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일원에서 열렸다. 등산대회에 앞서 참가자 전원은 이날 오전10시 수유리 4·19기념탑앞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봉출신 노회두 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총학생회장 권오림(화학4)군은 "4·19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의 장으 로 나가기 위한 동국인 등산대 회를 하자"고 말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4·19 기념탑을 출발 대동문, 태고사 터, 도선사에 이르는 코스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착지 도선사에서 오후4시 30분부터 시작된 폐회식에서 吳國根부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교인이 갖는 유일한 4·19 기념 등산대회를 통해 서로간에

우의를 다져 동국발전에이바지 하지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최우상장 및 특별상은 모두 지리교육과에 게 돌아갔다.

이날 폐회식후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학자투 집회를 가졌 는데 부총학생회장 이진현(경 영4)군은 "부당한 등록금인상 과 기만적 환불조치는 결코 잊 을 수 없다"며 재단총장·부총 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도선사를 내려오면서 "민중탄 압 민주압살 노태우 정권타도 하자" "해체민주당 퇴진 노태 우"등을 외친후 오후5시경 자 진 해산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4.19기념 '제1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 난20일 오전9시부터 경주 남산 일원에서 교직원·학생등 1백5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수습기자 추가 모집

大學理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報에서 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 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〇〇명
②응시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정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침서는 본사 총무부 에서 배우다)

⑤원시접수: 서울 5월3일 오후4시까지
경주 4월26일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5월3일 오후5시
경주 4월26일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시체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 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교수동정

▲蔡濤(신학) = 지난5일 '신라전표유사 연구'라는 논문 으로 90년도 제8회 '雷盧 학술 상' 수상.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金榮暉(행정학) = 지난9일 부터 1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 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 51회 미국행정학회(ASPA)에 는 논문발표와 참석.

제등행렬등 행사 다채 초파일까지 불교도 주간

서울캠퍼스 불교도연합회는 오늘(25일)부터 음력4월 초파일인 내달2일까지를 '불교도주간'으로 설정하고 법회, 절등식, 제등행렬등 다채로운 행사 를 펼친다.

"오라, 벗들이여! 평등·화 합의 공동체실현을 위하여"라 는 기치아래 오늘 오후5시 지

선스님 초정 수계법회가 불상 앞에서 열리며, 이어 교내일원 이 마련된 4백여개의 연등 점 등식과 촛불의식이 있을 예정 이다. 한편 석가탄신일 제등행 령이 오는 28일 오후3시부터 여의도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코스에서 있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총학생회장 권오림(화학4)군은 "4·19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투쟁의 장으 로 나가기 위한 동국인 등산대 회를 하자"고 말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4·19 기념탑을 출발 대동문, 태고사 터, 도선사에 이르는 코스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착지 도선사에서 오후4시 30분부터 시작된 폐회식에서 吳國根부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교인이 갖는 유일한 4·19 기념 등산대회를 통해 서로간에

우의를 다져 동국발전에이바지 하지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최우상장 및 특별상은 모두 지리교육과에 게 돌아갔다.

이날 폐회식후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학자투 집회를 가졌 는데 부총학생회장 이진현(경 영4)군은 "부당한 등록금인상 과 기만적 환불조치는 결코 잊 을 수 없다"며 재단총장·부총 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도선사를 내려오면서 "민중탄 압 민주압살 노태우 정권타도 하자" "해체민주당 퇴진 노태 우"등을 외친후 오후5시경 자 진 해산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4.19기념 '제1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 난20일 오전9시부터 경주 남산 일원에서 교직원·학생등 1백5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이반대회의 개최식은 오늘 (25일)오전 11시30분 금강관 (체육관)에서 申國生총장서리, 朴漢永본대학 명예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우승기반한, 총장 인사, 내빈축사, 선수대표선서 등이 있게 되고 폐회식 및 시상 식은 이날 1일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거행된다.

변수

가 모여들었다. 그러나 불법 인연을 떨치고 부처님과 대적하여 무엇이면 겨누어 보자고 하며 평소 자기의 역 량을 과시 하고 있던 사자가 라는 변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사자는 자기 동료들 앞 에서 "석가여래가 말 잘 하 기로 명성이 높았는데 어디 내가 한번 만나 그를 우습게 만들어 줄테니 보라"고 호언 장담 하였다.

마침내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사자는 부처님을 만 난 즉시 교만을 떨쳐 자기 의 언변을 자랑이나 하듯이 말꼬리를 늦추지 않고 장광 설을 토했다. 시중 듣고만 있던 부처님은 그에게 따끔

중적으로 잘 들어낸 예라 할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여러 유형으 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룸 불렀지만 필자는 主義의 범 람시대라고 본다. 이러한 주 의의 공통분모란 절충주의가 아니고 순-이라고 본다. 정 진이 있는 합일은 이해와 건 설 뿐이다. 崔玄覺

불문연 주최 불탄기념 학술세미나 '북방정책시대의 불교' 다뤄

'북방정책시대의 불교'를 주 제로한 부처님오신날기념 학술 세미나가 본교 불교문화연구원 (원장=蔡濤·신학) 주최로 오늘(25일) 오전10시 동국관 (L101)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閔丙天(행정학) 본교교수의 '동구권번 화와 북방정책전망' △林然哲(동아일보문화부장)씨의 '중 국 조선족의 불교현황과 포교 방향' △申法院(제미 LA사카

무니카카테미원장)님의 '통 일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불교 교류'라는 주제발표가 있게된 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閔丙天(행정학) 본교교수의 '동구권번 화와 북방정책전망' △林然哲(동아일보문화부장)씨의 '중 국 조선족의 불교현황과 포교 방향' △申法院(제미 LA사카

동대신문 40주년 기념 '동국정신 선양 기획광고' 6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

남산골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로 새벽을 열었던 東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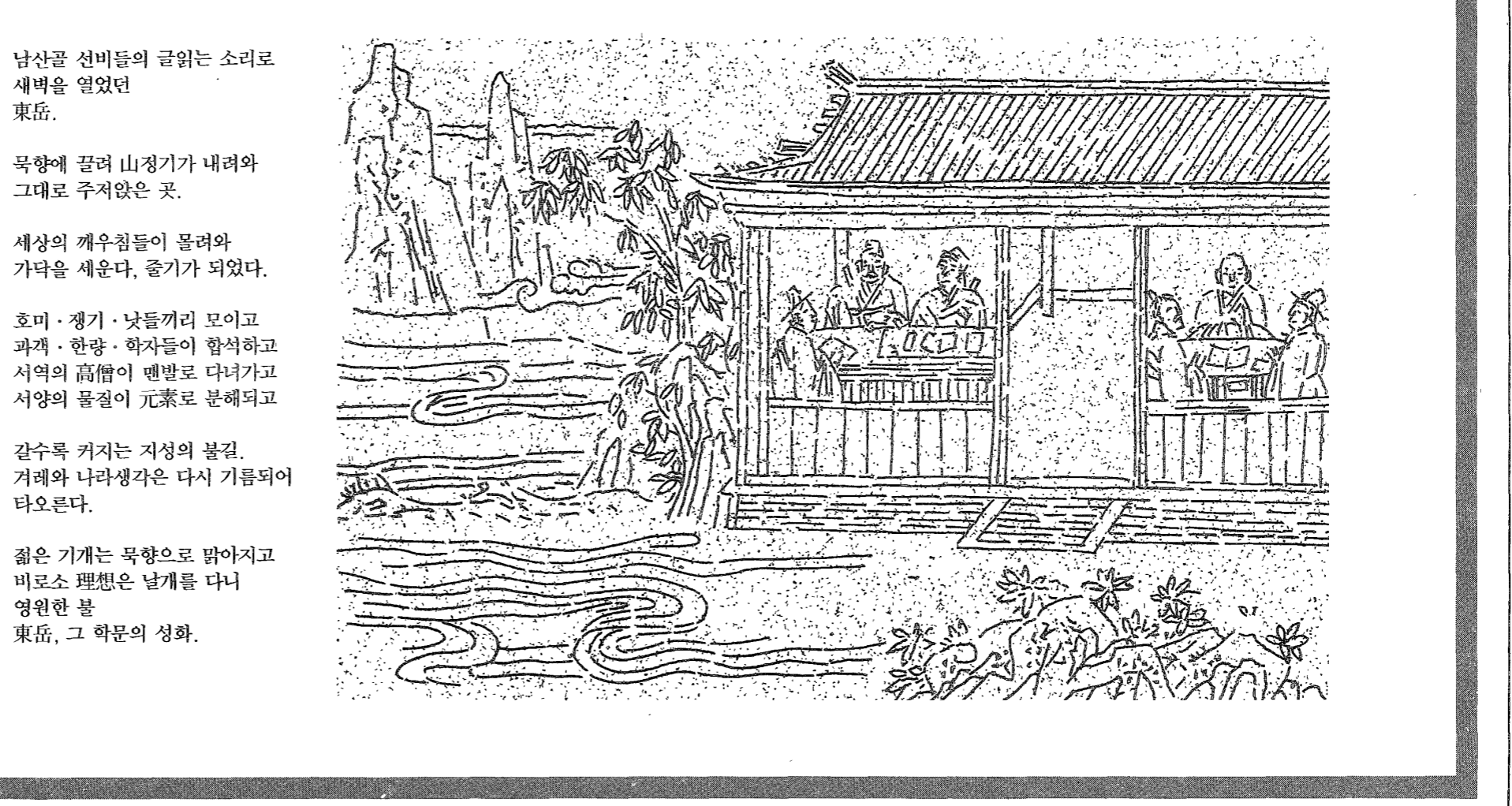
묵향에 끌려 山정기가 내려와 그대로 주저앉은 곳.

세상의 깨우침들이 물려와 가락을 새운다. 줄기가 되었다.

호미·쟁기·낫들끼리 모이고 파궤·한량·학자들이 합석하고 서역의 高僧이 맨발로 다녀가고 서양의 물질이 元素로 분해되고

갈수록 커지는 지성의 불길. 겨레와 나라생각은 다시 기뻐되어 타오른다.

젊은 기개는 묵향으로 맑아지고 비로소 理想은 날개를 다니 영원한 불 東岳, 그 학문의 성화.



社說

1천개과 방북투쟁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불교계 학생회와 사회대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상대 무역학과 학생회가 각각 단과, 과 특성에 근거해 북한 답사 내지는 북한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분단된 남·북한의 재통일을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양자간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남·북학술교류추진등 전면 개방·자유왕래운동은 조국통일 추진의 좋은 방도와 믿는다.

친미파소아합이요, 정치구태타인 3당통합의 본질이 두개의 한국조작을 위한 정치적 입이라 할 때, 전면 개방, 자유왕래운동의 일환인 남·북한 학술교류는 이를 내용적으로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가 청구인일와 논리로 남북대화를 독점, 선별적으로 교류를 허용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세력을 탄압할 때, 남·북학술교류를 이룰 효과적으로 적과하고 통일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정부가 방북을 허용할 경우, 남북교류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겪게 되고, 불허할 경우, 반동일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 국민들의 거센반발을 받게 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남·북 학술교류추진에 학생회의 강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학술교류를 하려면, 먼저 과별로 북한대학과 교류할 내용 내지는 답사지역에 대한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연구팀이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거의 부재한 학회건설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한의 학문은 방북론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분단으로 인해, 혹은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많은 편협함을 지니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한 정보의 왜곡, 차단 등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답사내지 교류가 성사되면 북한에서 쌓아 올린 학문의 업적을 수용, 남한 학문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추진이 1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과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통일의 주체는 바로 우리학교 1만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다.

공간정국타파는 현시점 선결과제

89년에 불이타졌던 공간정국의 약동이 근래들어 학내에서 재현되고 있다.

지배정권의 박악이나 재정을 위한 몰부림으로 표출되는 공간정국으로서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던 이념의 열렬정신학도들과 양심수, 노동자들은 권력의 폭압아래 엄청난 괴를 겪었다.

공간정국의 대담적 양태인 학생운동단합 상황은 동아내에서도 가공일만 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21대총학생회장을 지냈던 김성규군은 17일의 선교공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업무방해죄등의 죄명으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6개월을 선고받아 석방됐고 지난해 동원사범부장 이상용군은 집시법위반, 화염병치열등의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물론 이상용군의 구속은 지난해 12월22일 사복경찰의 학내입을 통한 공간정국의 태동단계에서 진행된 사건들로 형상을 한다 하더라도 별비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앞서 지난 5-6일 이틀동안에도 화염병치열범위반죄로 6명의 학생의 불법입학, 구속되었다. 특히, 이상용군의 경우 등교하기위해 집을 나서던중을 연행되고, 최은용군의 경우 집에서 수면을 취하던중 연행돼 학생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구속동지구출및 민자당분쇄를 위한 범대학 결의대회에서도 2명의 학생이 중부

서에 연행되었다. 경주캠퍼스 교직원군도 현재 구속상태이며, 이미 구속된 학생들의 예도 서울캠퍼스30여명, 경주캠퍼스20여명의 학생들이 수배중이다.

동아내에서의 탄압상황외에도 현재 지행되고 있는 전노협이나 노동자에 대한 탄압, 전교조활동부활화, KIS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권력부림, 민생지인의 부재등은 현정권의 한계와 반민주·독재지향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장산꽃매의 '괴롭힘'상징에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6명은 민주를 갈망하는 시대적 부름에 역행하여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

올해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학생들의 연행은 중부경찰서에만, 노동자들의 탄압을 백골단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며 학원탄압과 민중탄압을 조정·결정하고 있는 민자당분쇄투쟁에 시각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민자당분쇄이후 가속화된 학생들의 연행과 노동운동의 억압은 공간정국을 실감하게 했다.

연행구속은 위해 서울시경정단만이 구성된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크게는 기층민중연대의 틀로 막아내고, 작게는 수배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모금운동, 편지쓰기등의 활성화로 저지해야 할 것이다.



許政會 (건강사회 실현위안 약사회)

국내에서 농약이 처음으로 사용된것은 일제때 부터였다. 하지만 농약은 증강제수와 함께 깨끗했던 국토를 오염과 죽음의 공포속에 몰아넣고 있다. 70년대부터 식량증산이라는 미명아래 농약의 사용이 급격

생태계 파괴주범 눈앞에 두고 방관

농약남용 이대로 좋은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1982년 1,186명이 농약 중독으로 사망했었으나 86년에는 1,391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또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과 수질오염이다. 골프장 하나가 몇백만평씩 하는데 그 넓은 잔디를 보충하기 위해 많은 농약(보통 논에의 2~3배정도)을 살포하여야만 하는 문제이다.

외국에서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캐디의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나 기형아 출산이 문제시 되고 있다.

더욱 큰문제는 서울시민의

전품목 개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 비율이 91년에는 84.9%에 이를 전망이다.

또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39.1%에 이르는 것을 볼때 국민 전체가 하루 2기 정도를 의 국산 농산물을 먹고 있는 현실이라 볼수 있다.

우리는 89년에 있었던 "자몽"과동과 미국의 테도를 기억한다. 수입 농산물은 우리몸을 오

이러한 오염물질은 여러가지 경로로 통해서 우리몸에 파고 든다.

물론 처음에는 피해 정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10년20년후가 되면 여러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자연면역체계의 약화로 각종 암유발, 기형아출산, 생식 기능의 장애, 건강·신경조직의 손상, 현기증유발, 어린이들의 이상비만, 신형, 습이 가쁘고 매스꺼움·기침을 품을수 있다.

우리 국민은 많은양의 의료비를 매년 지출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는 주위 환경의 오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약하면 농민들의 문제점으로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실제로 본과같이 이 문제는 결코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농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 뿐만 아니라 땅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서도 농약사용에 대한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오염된 외국농산물 버젓이 식탁에 올라

국내에서는 1년에 2,000억원 어치 이상의 농약이 논, 밭, 과수원에서 모든 농작물과 파입에 뿌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농약 중에는 선진국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맹독성 농약이 자유로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농작물은 농약이 잔류 한채로 식탁에 올라 전국민의 입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식수원인 한강물의 오염인 것이다. 작년에 만도 한강 상류에 20개가 넘는 골프장이 건설중이라 한다.

앞으로 골프장에서 쓰는 농약의 양은 엄청날 것이며 이는 맛물에 씻겨 한강물을 오염 시킬 것이다.

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된 수입 농산물에 의한 오염문제 또한 심각하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해 거의

엄 시킬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기도 오염 시킨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옥수수의 80% 정도가 미국에서 들어 왔다.

그런데 이중 대부분이 아프 라카신이라는 발암성물질로 오염되어 미국국제 내에서도 폐기 처분 한것을 들여와 식량용과 사료용으로 판매 되었다.

수입농산물은 생산원후 보존제·방부제·항생제등 많은 유해 물질을 첨가하여수출하게 된다.

한의대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인간의 생명을 탐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도사관은 전문도사와 공간의 부족, 시설미비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명에 대한 경의심까지 상실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 부족한 중앙도사관 외에 단대도사관을 따로 설립함은 불고기에게 어항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대대학도사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첫째, 분야별 전문도사의 충분한 확보(현재 도사관의 한의학 서적은 개인-

통학 기사식

학생회관 인구밀도 너무높다

방없는 동아리는 어디로...

특정된 목적을 자기내용으로 가지며 자치활동을 전개하는 동아리는 필수적으로 자기전 문성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자치공간을 요하게 된다.

현재 동아리연합회에는 60개의 동아리의 1개의 신규동아리는 포함하여 모두61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있다. 그러나 61개의 동아리중 독립된 공간, 즉 동아리 한방이 확보된 동아리는 55개동아리이고, 1개의 동아리는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동아리방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4개동아리가 2개의 방에서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절대다수의 동아리들이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확보된 자치공간이 동아리 자치활동에 걸맞은 공간인가의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는 우선 확보되지 못한 동아리들의 자치공간을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위문제는 간단히 공동적입실과 연수실에 문제가 있다는 수준으로 밝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아리 자치공간 확보에 대한 장단기적계획을 제시한다.

아무리 단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공간문제는 전체적인 학내 상황속에서 학원자주투쟁을 중심적인 사안으로 놓고 계획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

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일라실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3천 동아리인 의 결집된 힘으로 명확히 요구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투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장기적계획으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으나,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단의 혁신이라는 위에서 제시한 단기적계획도 험난 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단위복지사항을 복지 증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단혁신의 관점에서 바로 지금 3천 동아리인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것이다.

있는 한의대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인간의 생명을 탐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도사관은 전문도사와 공간의 부족, 시설미비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명에 대한 경의심까지 상실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 부족한 중앙도사관 외에 단대도사관을 따로 설립함은 불고기에게 어항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대대학도사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첫째, 분야별 전문도사의 충분한 확보(현재 도사관의 한의학 서적은 개인-

교수나 학생-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에 불과하다) 둘째, 충분한 열람실의 확보 셋째, 학문의 연구와 신속한 정보수집과 자료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며, 아울러 각 계열별 연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당국과 제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도사관은 그 최초의 구비조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국관앞 즉구행렬 '꿀불겉'

통행방해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언제나 흔히 볼수있는 모습 중에서 고쳐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학우들의 무분별한 즉구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어떤 학우들은 즉구에 무슨 문제가 있으나 하는 물음을 던지겠지만 즉구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학우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번쯤 동국관앞을 지나쳐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걸어나다기에 불편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다.

동국관앞 도로에서부터 해화관입구까지 늘어선 3-4개월이 즉구를 하고있으면 뛰어나는 학우들과 날아다니는 즉구공을 피해다니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또 얼마전에 한 학우가 공에 맞아 안경이 깨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경주도서관 기능 상실했나

전문서적 찾기 '하늘에 별따기'

대학은 학문탐구와 인격을 닦는 상야탑의 위상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며, 대학인은 사회진출과 학문탐구를 심화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전문서적의 습득과 인간으로서의 교양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도서관은 '대학의 중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은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무수한 문명과 문화를 저장하여, 새로운 문명과 문화창조의 역사적인 사명이 부여되어 있

유기음

(법과대·법학과)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東國漫評

임지성

쌍용인은 이렇게 합니다

지난 해 3월 15일 쌍용은 창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오늘의 쌍용을 있게 해준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의 실천을 위해 저희들은 생산현장에서, 매장에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토론을 거듭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현재 쌍용의 생산, 영업, 교육, 인사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쌍용을 이끌어 가는 최우명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은 이 최우명에 어긋남 없는 생활로 더욱더 사랑받는 여러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있으므로서 비로소 우리가 있고, 고객의 신뢰를 받아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객을 사랑하는 쌍용인이 된다.

- 고객을 자주 만난다.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한다.
- 고객에게 친절히 한다.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 고객을 위한 일에 정성을 다한다.
- 고객의 불만을 즉시 해결한다.
- 마무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도를 생활화하는 쌍용인이 된다.

-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 공정하게 경쟁한다.
- 공평하게 대우한다.
-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처신한다.
- 정당한 방법을 택한다.
-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 사회적 질서와 회사의 규범을 준수한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는 쌍용인이 된다.

-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
-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 항상 문제를 찾고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한다.
-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계속해서 실험하고 시도한다.
-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노력한다.
- 자기 일에서 전념가가 된다.

변화를 수용하는 쌍용인이 된다.

- 항상 미래를 대비한다.
-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 변화를 가까이 하고 받아들인다.
- 변화에 자신있게 대처한다.
- 사회적 변화와 회사의 규범을 살피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의 성과가 그 주체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사람을 존중하는 쌍용인이 된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타인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 타인의 성장을 돕는다.
- 타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 스스로를 아끼고 긍지를 갖는다.
- 스스로 존중받도록 행동한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쌍용인이 된다.

- 솔선수범한다.
- 자기역량을 다한다.
- 팀의 목적을 존중한다.
- 대화를 즐긴다.
- 서로 도움을 준다.
- 공동과제를 자주 수행한다.
- 다른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민자 + 독점자본 = 개악’의 악순환

노동관계법 개악음모를 고발한다

- ... 민자당의 결성이후 수많은 탄압에서도 ...○
- ... 주축되는 것은 바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
- ... 이다. 사회법적의 주체로서 유독선 노동자 ...○
- ... 들의 신도적인 투쟁은 저들에게 심각한 생 ...○
- ... 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글 ...○
- ... 에서는 노동법개악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에 ...○
- ... 대응하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책을 살펴보고 ...○
- ... 자 한다. (편집자) ...○

5공화국 전두환정권의 폭력과 공포에 눌려있던 노동자들은 87년 6월항쟁과 7·8월노동자투쟁을 거치며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우리 일은 우리 힘으로”한다는 자주·자립의 정신으로 자신의 인생과 직장,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서 노동자 본래의 지위와 역할을 찾으려 일어난 것이었다. 그 결과 87년 초 1백만명이던 노동조합원수는 90년 초만 193만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변화를 보였다. 노동쟁의를 보이던 80년대중반까지 매년 1백~2백여건에서 87년 3천7백여건 88년 1천8백여건, 89년 1천6백여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에 억압해온 악법의 굴레를 깨고 “나쁜 법은 법에서 고친다”는 적극적인 정신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는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법을 뜯어고치려는 노동법개정운동들을 힘차게 벌였다. 이에 따라 87년 11월, 89년 3월 부분적으로 노동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 ①근로자라는 말을 ‘노동자’로 바꾸어 주체를 분명히 할 것
- ②공무원·교사의 노조결성을 보장할 것
- ③정치활동을 금지한 노조법 12조를 철폐할 것

노동연장·월차휴가 폐지등이 골자 노동자의 정치활동 보장 시급 개악반대투쟁, 조직강화 계기돼야

- ④임시총회소집을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6조 3항을 개정할 것
- ⑤노동쟁의조정법을 철폐하고 단체행동권을 노조법에 보장할 것
- ⑥제3차개입금지조항을 철폐할 것
- ⑦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5호를 철폐할 것 등

이 개정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동법의 개악음모를 보면 근로기준법중에서 현행 주당근로시간 44시간제(지금쯤은 잠정적으로 46시간으로 실시되고, 규정에 따라 90년 10월 1일 또는 91년 10월 1일부터 44시간 실시)를 46시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 25로 낮추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것일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 단체교섭대상을 축소하고 단체행동시 쟁의행위 찬성결정족수를 현재의 과반수에서 75%이상으로 높여 쟁의행위결정을 어렵게 하고,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

임금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확보한 것을 모두 빼앗음으로써 노동대중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활동의 폭을 좁혀서 노동운동의 토대를 허물어 뜨리려는 자본의 음모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노동자들은 87년 이후의 투쟁과정에서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법의 고질 내용을 대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독점적 성격의 의폐를 갖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봉건적 성격과 예속성을 반대하는 직장내의 일상투쟁인 것이다. 이 투쟁은 직장내의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의 자유를 생취하는 민주적 토대의 건설과 미래의 자주관리체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대중의 단련과 구조적 인식의 학습장으로 되며 임금투쟁과 함께 바로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노동법개정, 국가보안법철폐 등 악법개악과 민주정부수립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보다 강화·발전시키려면 노동조합의 통일된 단일조직건설이 시급

히 요구된다. 특히 노동운동에 조직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작은 승리는 조직적으로 담보될 때 지속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조합은 전노협, 노총, 그리고 두곳에 모두 불참하는 중간적인 생산선 노조와 또한 사무전문직 중심의 13개 업종별노조로 나뉘어져 있다. 전노협은 노동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2의 민주노총으로 출범하였다. 지난날 대다수의 노조는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에서 인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7·8월노동자대투쟁이후 많은 노조들이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에의 예측성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의 위태를 통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단일노동조합으로의 방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대중의 올바른 통일적 방향은 노동법개정등 악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대중 투쟁의 교양과 조직의 확대 및 통일은 바로 노동법개악을 막을 뿐 아니라 이 개악반대투쟁

을 통하여 대의존적 경향성을 시급히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내용과 토대, 기초를 다져 일상활동 및 일상투쟁과 단체행동을 지구전적으로 끈질기게 벌여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공권력의 탄압에 대하여는 노동자대중의 광범한 참여뿐 아니라 간부의 결단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전망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통일·집중하는 간부의 지위와 역할은 노동문제 해결의 중심고리이다.

이를 통해 간부는 대중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여 대중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특히 90년 임금인상투쟁과 민자당 반대투쟁에 대중적인 토대와 기초, 내용이 갖춰질 때 노동법의 개악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장 명 국
(석탑 노동연구원 원장)

사학비리 분류 인천 명신여고를 찾아

“비리척결”에 쇠파이프 원말

“아니 수습대책위가 선생님들 학생을 자르는 곳입니까?”
“그러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자기네가 뭘 안다고 농성입니까?”
“우린 잘못없어요. 부당한 강제 학생 풀이달라는 데 왜 그러세요?”
“조용히 해. 너희는 자기 가 있어”



◇지난 2월초 명신여고 학생들이 부당한 해직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인천 교육위원회 앞에서 연좌시위는 모습.

지난 2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명신여고에 도착했음에는 부당한 학생 및 선생님의 징계를 철회하라는 주장하는 학부모·학생과 문제되는 사람은 ‘자르고 보자’는 수습대책위원회의 학부모들간의 말다툼이 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지난해 제단에 대해 학원자주투쟁을 수행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 최근에 6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그중 3명은 구속, 학생도 6명이나 징계처분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정월계단 산하 인천 명신여고를 찾아가 보았다.

정월계단은 전 이사장 강종택씨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명신여고의 학사운영을 마음대로 주물러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매년 분규를 일으키게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에 ‘교사협의회’가 발족하여 제단의 학사운영책임 배제, 자주 학생회칙 마련등을 내용으로 한 협의서 20개항을 작성하고 곧 해체했다. 그러나 그후 제단은 협의사항 준수수치 표명했지만 3학년 학력교사가 끝나자마자 교사협의회소속이었던 교사 6명을 무더기로 해직시키는데 협의사항을 그저 전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렇듯 교사가 유출해 개혁을 하면서 학생들은 ‘6명교사의 부조근 복직’,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운영보장’등을 요구하며 전교생 2천여명이 수업거부하며 운동장전파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3월20일부터는 해임·현직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던중 급기야 나흘후인 24일에는 해, 쇠파이프를 휘

아 한다”는 것이 학교와 제단측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도려내야 할 썩은 부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직교사5명이 농성중인 인천 카톨릭회관을 찾아가 보았다.

농성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일련의 낯익은 명신여고 학생을 데어 셋방이 달려들어 무안할 정도로 기자의 안부부터 물었다. “이거 경찰서로 끌려가서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막 메리지는 않던가요?” 오전에 학교내에서 취재중 ‘3차 개입금지(?)’라며 연행하려하자 스크림을 짜며 기자를 보호하던 학생들이었다.

농성중인 해직교사 연계열서는 자신도 동국대 출신이고 이원주해직교사도, 그리고 구속된 강종택씨는 국문과 수석출입생이었다며 ‘명신여고는 동대출신이 배겨나지 못하는 곳’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힘차고 당찬 얼굴로 열면 토론을 학생이 갑자기 가벼운 비명을 지르며 안타까운 얼굴을 들었다. 한 학생이 실신해 버린 것이다. 옆에서

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일양은 “승민(3, 농성주도로 퇴학)이가 잠깐밖에 한쪽은 울며 붙잡고 다른 한쪽에선 그러려니하고 공부하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무관심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같이 무척 괴로와요”라고 말하고 “막내 윤명순(1)이는 입학하고 수업3시간하고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라며 말끝을 흐리고는 고개를 숙인다.

“치기아 전교조 교사라고 징계를 받았지만 인천지부에서 계속 선생님이 지지방문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나 타대학의 학생회나 사법대와 연계는 아직 부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단에 대한 학원자주투쟁이 옳은 것이라 믿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두달에 가까운 힘겨운 농성과 투쟁이 아직도 이척전 견제하게 버티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민주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연계열 교사는 투쟁의지를 밝힌다.

무차별 징계에 공권력 투입까지 두달의 농성에도 꺾끗이 싸워

두르며 공권력이라는 가면을 쓴 소위 백골단 80여명이 난입하여 30여명 학생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며 무차별 연행하여 철야조시작업후 다음날에 풀어주는 백골단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후 2일에 걸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의 일방적 휴업령으로 ‘학술권침해’의 전형을 보여 왔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연일 징계학생학부모·학생들과 학교·계단측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장하며 쟁쟁한 사태의 수습이 전전미지 않고 있다. 징계학생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자율적 학생활동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사법수습을 위해서 해는 부위는 도려내

제단에 맞서 투쟁하는 선생님과 어린 여학생들은 장학사 상주, 어용 학부모개입, 공권력 투입, 제단·학교의 폭압적 상황 속에서 외롭고 지지치던 곳까지 싸워가고 있다. 결코 ‘썩은 부위’가 아닌 ‘푸른 새싹’이었던 것이다.

합교육의 일념으로 일어난 어린 학생들은 온갖 어려움을 딛고 싸우는 모습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평가와 반성이 끝나고 경찰서에 있는 김승민(3)양의 말을 한 여학생이 전했다.

“난 걱정돼. 내 뒤에 너희들이 있잖아. 난 잘 싸울 수 있어.”
그 뒤로 농성장의 ‘동지’들은 더욱 크게 울려 퍼진다.

(남궁 은 기자)

다시 한번 '형설지공'의 의미를 생각한다.

엔 중국의 (차운)이란 사람은 기름을 살 돈이 없어 대신 반딧불을 모아 그 불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무척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 흔하지도 않은 반딧불을 이마도 수백 마리씩이나 훑아다녀 모았을 그의 학구열에는 결코 감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차운)처럼 반딧불을 모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환하게 불이 켜지고 그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서는 그와 다를바 없습니다. 차운이 한마리 한마리 반딧불을 모았듯이 우리도 조금씩 학문을 쌓아가야 합니다. 고된 반딧불이 모여 큰 빛을 발하였듯,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점점 밝아져 갈 것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노동의 아름다움' 담아내는 우리옷

우리네 '입거리 문화'를 생각한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아침이면 누구나 한번쯤 입거리에 대해 생각 내지는 고민을 할 것이다.

옷은 그 본래 목적대로 형태, 색, 문양, 소재, 장식, 기능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된다. 그러나 요즘들어서는 옷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잃은 사람의 취향, 인격, 사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내가 걸치는 옷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로 '나'라는 인격체가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계층공화국 기간동안 우리의 입거리 문화는 극도로 사치스러워졌다. 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유학생들은 명품기구를 보여 여자가 정말 한국인가 의아해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외국산품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9년부터이다. 물론 이때는 국산섬유제품의 기술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국 우리사회의 사치풍조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교육의 색깔은 찾아 볼 수 없고 청바지에 미니스커트 그리고 너도나도 유명 브랜드를 가슴속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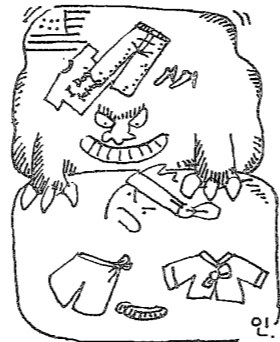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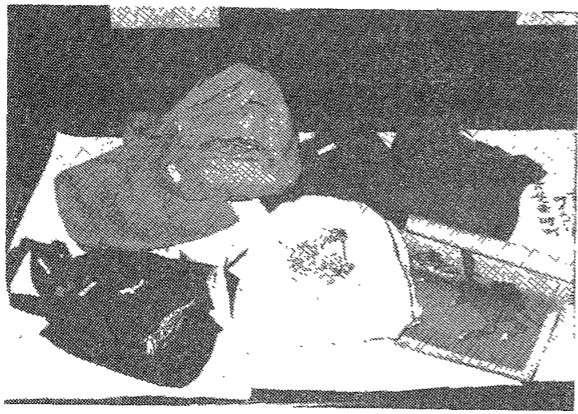
겉으로 보기에 그제 순수

해투기 위협시대에 살면서 미술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역시 핵전쟁에의 비관적 접근이 일종의 급기사향으로 여겨졌던 우리네의 풍토에서 미술인들의 두드러진 움직임은 볼 수가 없다. 반핵운동이 나가서 반전운동에 미술은 무기력해한 한 것일까. 원폭이 투하된 지난 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상흔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본에 원폭을 주제로 30여년동안 작업을 해온 마루기부부 있다.

마루기부부. 마루기는 우리에게 반핵과 반전운동과 미술은 한 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다. 마루기 이리(1901~)와 마루기 도시(1912~)는 1941년 결혼한 이래 거의 공동으로 작품을 발표해왔다.

마루기 이리는 일본화를 전공했으며 학교교육보다 개인 사상을 통하여 자신의 미술세계를 스스로 구축했는데 한때 수묵화의 추상화 작업에도 몰두한 바 있으며 1988년 미국의 미시주주세에대학에서 명예 예술학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슬한 인생역정을 걸었다.

부인 마루기 도시는 북해도 출신으로 상경하여 여미미술전 문화회에서 4년간 양화를 배웠는데 일찍 '여류 고갱'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림을 그리던중 이리를 만나 결혼했다. 이들 부부의 작품세계는 히로시마 원폭의 인상을 비롯 주로 전쟁



서양옷은 편하다는 사대주의의 생각 고칠때

한 아름다움의 과장된 치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양옷은 그 쓰임이 편리하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 특히 청바지를 한데로 들자면 유독한 공업용 화학약품으로 탈색한 흰 물빠진 청바지(스노우 진)는 피부염,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에 젖은 청바지를 입고서 한시간만 산을 오르내리면 관절염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청바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생활하는 거의 모든 의복은 서양옷이다.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때 서양옷은 그 쓰임이 편리하였다고 한다. 팔다리를 조여주고 허리를 꽉 조이는 옷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서양옷을 너도나도 편하다고 아무런 생각없이 입으며 이제에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칭찬을 받거나 '가게'에 이르렀다.

과연 서양옷이 편하기만 한 옷일까? 청바지가 편하다고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

효과를 얻었다. 또한 '트임'을 들으로써 쾌적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고 보행, 동작, 세탁, 위생에 효과적이었다. 외래 '입거리 문화'가 허리를 졸라매고 성적매력을 북돋우며 유아에게 '노는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입거리 문화'는 '노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옷이다. 이러한 입거리 문화에 대한 자각으로 민족생활문화연구소에서는 '우리옷입기운동'을 5, 6년전부터 실시, 현재 우리옷의 특성을 살린 옷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일옷, 바지, 덮개옷, 아이옷에서부터 걸개, 바탕, 손가방,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우리옷과 생활용품은 제작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단체주문을 원할 때에는 이곳에서 직접 문양을 그려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 앞산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옷하나 물건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의 입거리 문화를 온전히 되찾는다고 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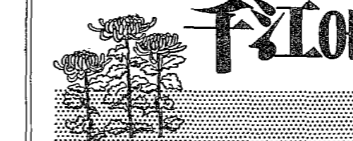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양복에 베타가 일하는 옷처럼 되어버렸고

아울러서 예의를 차리는 옷으로 되어버렸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입거리를 되찾자는 것은 바로 우리민족정신을 되찾자는 것이다.

우리의 옷은 이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일상적 운동복에서 서민이 가장 올바르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대중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해야 함이 현저하게 되어 가장 시급하다 하겠다.

(최운옥 記者)

달하나 '희망사항' 듣던날



鄭用吉 (사회대교수·국제정치)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아까운 정도로 날씨 좋은 날이 며칠 전에 있었다. 학생들의 요구대로 이른바 '외국어'를 하러 외출 취학에 선생님을 달 옆으로 갔다.

아무리 이런 지리 세상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예닐곱살 밖에 안된 보이는 여자어린이가 '.....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내 애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라고 구성지게 노래를 불러 제겼

그 어린이가 부르던 노래에는 별의 별 '희망사항'이 다 있었다. 그런식으로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희망사항, 직원들의 희망사항, 교수들의 희망사항, 총장의 희망사항을 열거해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우리는 씩씩 웃었다.

학교로 되돌아 오는데 최후편 뉘셋가 코를 찌르고 눈물주머니를 자극했다. 학생들은 그것을 지랄탄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들이 야외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오후에 학생들이 전경들과 바로 교실 옆에서 한문수(??)를 벌일것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또 그렇게 화창한 날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실옆에서 축구하기를 벌여 공이 한두번은 우리장문을 쳐 수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실에 돌아와 책을 뒤적여는데 동대신문사의 기자에게서 원고청탁 전화가 걸려왔다. 신문사에서 4월 11일에 내게 부탁하는 글들이란 대부분 4.19와 관련된 글이거나 또는 민감한 정치문제에 관한 것들이기에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거칠한 양으로 시간이 없음을 비쳐지 기자는 일본 언어라고 '달하나' '희망사항'의 글이나 가만히 써달라고 했다. 마지못해 승낙은 해 놓았으나 마땅한

글감이 없었다. 그날밤 늦게 C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는 대학생시절 가끔 밤을 하얗게 새며 남들의 연극같은 인생살이를 얘기했었다. 그러면서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이 정말 그럴듯 하다고 했다. 전화 받은 날 밤도 내게는 밤이 아니었다. 뜬눈으로 보낸 다음 날 부라는 어무리 가벼운 글이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지 칸수나 매우자는 심사에서 詩한수를 올렸다.

'달하나' '희망사항'이 다 있었다. 그런식으로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희망사항, 직원들의 희망사항, 교수들의 희망사항, 총장의 희망사항을 열거해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우리는 씩씩 웃었다.

학교로 되돌아 오는데 최후편 뉘셋가 코를 찌르고 눈물주머니를 자극했다. 학생들은 그것을 지랄탄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들이 야외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오후에 학생들이 전경들과 바로 교실 옆에서 한문수(??)를 벌일것이라는 정보도 있었고, 또 그렇게 화창한 날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실옆에서 축구하기를 벌여 공이 한두번은 우리장문을 쳐 수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실에 돌아와 책을 뒤적여는데 동대신문사의 기자에게서 원고청탁 전화가 걸려왔다. 신문사에서 4월 11일에 내게 부탁하는 글들이란 대부분 4.19와 관련된 글이거나 또는 민감한 정치문제에 관한 것들이기에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거칠한 양으로 시간이 없음을 비쳐지 기자는 일본 언어라고 '달하나' '희망사항'의 글이나 가만히 써달라고 했다. 마지못해 승낙은 해 놓았으나 마땅한

지금의 내 '희망사항'은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공양하는 것이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때 마친 내 마음을 엿보려고도 한듯 라디오에서 정발 변진섭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기쁘군요!'

나무아미타불!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3) 원폭피해 형상화시킨 마루기부부

의 참상을 즐겨 다루어 왔다. 작품의 주제는 매우 정치적이거나 사회비판적이기도 하다. 미술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또한 심화시키고자하는 마루기부부는 상호보완의 동반자로서 제작에 임했다고 한다. 인체묘사에 탁월한 부인은 주로 유곽선과 밀그림을 맡고 수묵의 명수인 남편은 전반적인 구도와 채색 등 면의 부분을 담당해 대부분의 작품을 공동제작했다.



이들 부부는 '원폭도시' 시리즈를 30여년동안 제작했는데 제1부 '유령', 15부는 '나기사'이다.

본 그림은 '원폭도시' 시리즈 중 제8부인 '구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루기부부는 평생 '원폭도시'를 제작하고 또 원폭도 미술관까지 운영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어 26만명이 사망할 때

동양적 기법으로 핵무기위협성 적절히 묘사

주로 다루면서 때로 서양적인 구도나 인체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대표작 시리즈는 역시 '원폭도시'이다. 제1부인 '유령'(1950년)으로부터 마지막 작품인 제15부인 '나기사'(1982년)에 이르는 30여년동안 동원주제를 가지고 작품체

고양이 히로시마인 마루기 이리는 두명의 조각을 포함 많은 진지를 잃었다. 이러한 원폭 체험은 3년뒤에 본격적인 작품제작에 이르게 했다. 제1부인 '유령'은 글자 그대로 유령들의 행렬로서 파멸된 인간상이 나신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생동감 있는 자세

체형을 형상화한 것이 마루기부부의 평생작인 '원폭도시'이다. 피카소의 '게르니카'같이 극적인 다양성이 결여된 대신 수묵이 가지고 있는 농담의 기운이 정확하고 유려한 인체표현과 어울려 독특한 세계를 이룬다. 마루기 화단의 인간상을 지

우리글 바로 암시다

공연히 어렵게 쓰는 한자말

글자들이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중들이 잘 인식하는 말을 써서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하거나, 적어도 너무 쉬운 말을 써서 자기가 무식하게 보일 것을 염려하는 버릇이 있다. 이 부끄러운 버릇을 틀어 고치지 않고는 우리말, 글을 살릴 수 없다.

이날 오전 '1333'의 조우가 예상

조우가 만남이

이산가족의 극적인 해후

매우 험거운 작업이지만

향후 민족·민주문화에 있어

향후-앞으로

그 사례는 현까지도 지

동학廣場

대원 동문회

5월 M-T준비를 위한 대원 동문회를 엮는다. 대원남고 여고 외고 학생들은 4월27일 오후5시 땀/하면 불상앞으로 모입니다. 지정금: 재학생-3천원+일아서. 신입생-3천원+오 하으니 뜨거운 가슴으로 만납시다. -대원동문회장이 곁합니다-

민족불교당 강좌개설

한국불교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사상의 사회화를 추구하며 불교대중 및 일반인에게 부처님의 사상을 토대로 가르치고 서로 배움의 자리가 되고자 '사회와 함께' 민족과 함께'라는 기치아래 민족불교당을 개설 9기 강좌를 마련합니다.

기간: 5월7일~6월24일(매주 월·목·요일)
대상: 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접수기간: 4월1일~5월7일(4월1일~5월7일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접수처: 한국불교사회교육원(354-5484)
동참비: 3천원

이반강좌는 모든것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굳건한 의지와 총체적, 전체적 인식을 갖게하는 계기로 마련 하였으니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군인대를 축하드립니다

강서8기 남해용 형의 군인대를 축하드리며 오늘(25일)임대하는 해운형의 반박이는 마음에 박박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재 강서고 동문회동-

준계생활

준계생활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땀방울을 확인합니다. 5월4일부터 7일까지 충북 제원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농민해방의 그날을 안아봅시다. 지금 곧 단대로 신청하십시오. -농민해방의 기수 농어촌 연구부-

UNSA인 여러분께

UNSA에서는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체육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5월2일 오전 10시30분 어디서: 체육대회-대운동장 간담회-다할관 교수식당 회비: 5천원 일단 동아리별로 먼저 오십시오. 많은 참석 바랍니다. -UNSA-

민족문학 교실

민족문학 작가회의에서는 제5회 시인을 위한 민족문학교실을 엮는다. 기간: 4월24일~5월31일 장소: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강당 참가비: 2천5천원 접수처: 민족문학 작가회의 사무국 (313-1486, 392-1838) 강의내용은 북한문학의 이해, 90년대 민족문학운동의 전망, 오늘의 농촌현실과 문학, 페레스트로이카와 문학 등으로 하여 천혜, 박원서, 윤종보, 도종환, 이오덕씨등이 강사로 나옵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개교84주년 · 동대신문 창간 40주년 제28회 전국 고교생백일장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화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문학의 새싹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8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 본교 입학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고교 문화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 2~3편 (나) 소설: 50매 내외(200자 원고지) (다) 수필: 15매 내외(200자 원고지)

■응모요령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작품을 본사에 제출.

■시상 (가) 각 종목별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원고심사)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 장원입상자(1등)가 본교 어문학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2등)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을 면제함. (다) 제1차 예선(원고심사)입상자에게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기간: 1990년 4월 30일~5월 7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귀중 1990년 3월 일

동대신문사

의료원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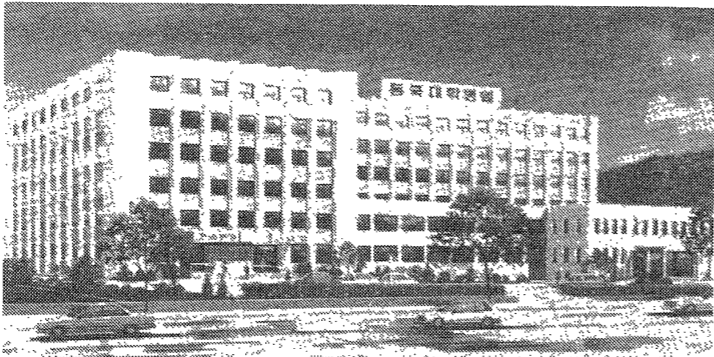
동국의료원 현주소(2)

의료원(Medical Center)의 기본 목적이 병원의 의료수익으로 병원 및 의학교육기관과 연구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때 동국의료원의 현 상황은 연구부분 확보가 어렵고 임리적 경영을 위한 의료원 체제가 비효율적이며 의료기관으로서 제반여건의 준비 정도가 미약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타대학에 비해 늦게 시작된 동국의료원의 경우, 본교 특성에 맞는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의 적극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이후 발전 가능성은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의료원 체제에 있어서 경우지역에 의료원이 위치하는 특성으로 재무행정의 합리성, 로 본교 의과대학의 경우, 최소기준확보 임상교수의 수가 42명인데 현재 현 임상교수는 절반수준인 24명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비율로 연세대의 경우가 70명, 21대의 수준이고 고려대의 경우도 60명, 148수준으로 본교 의과대학의 임상교수 인건비는 본교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인력수급의 장기적 차원에서 큰 결핍을 보이고 있다.

또한 9월 개원을 앞둔 경우 병원의 경우 3베드 규모에 임상교수 총원을 25~30명 선으로 확보한 상태로 이는 일반



‘중추’ 의과대학 본교생들이 임상실습과 대학병원의 3차 진료기관 화하기 위한 포함 병원증축이 요구된다. (사진은 증축설계도)

의과대학 본교생들이 임상실습과 대학병원의 3차 진료기관 화하기 위한 포함 병원증축이 요구된다. (사진은 증축설계도)

피하고 있다. 한의대의 임상실습 및 교육원 의과대학의 의과대학과 별 차이가 없다. 경주한방병원의 경우 22베드 규모에 6명의 임상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총병상수와 학생

수도권 지역 양·한방센터 건립 절실 임상교수 - 실습공간 확충 뒤따라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갈등해소등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의료원의 지위강화와 의료원장의 외부충동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국의료원의 체제는 中國性중성체제가 의료원장을 겸임한 상태에다 의료원기 획조정설 산하에 모든것이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의과·한과 본과생 공히 임상실습을 교수총원인용 교육여건의 확보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인

병원과는 다르게 교육 및 연구 과제를 안고있는 대학병원으로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과생의 임상실습공간은 경우지역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원후 2~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분석이고본과생의 실제도까지 완성된 포항병원의 조속한 증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다. 현 증축설계도로는 포항병원 본과와 옆에 지하층 자정6층 규모수준으로 통합 6베드수준의 메이드 3차진료기관으로의 발전을

현재 본교에서 유지하고 있는 4개병원(9월개원예정인 경주병원 포함)을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는 의문에 이른다. 학교당국의 확고한 발전의지와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이후 수도권(일산·분당 지역유치 예정)에 본격적인 양·한방 센터 건립의 원대한 포부아래 제1·2·3차-중추-학교당국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학교발전의 중추를 모색할 시점이다. (이만섭 기자)

4월 혁명 정신 계승 결의 30주년 맞아 청년학생 실천대회 가저

‘4월혁명계승 및 민주정부를 위한 청년학생 실천대회’가 지난19일 오후1시30분 학생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열렸다.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은 사회로 진출한 이날 대회에서 총학생회장 권오철(화학4)은 인사말을 통해 “4월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과시적 보수대연합맹과 노태우정권 타도투쟁에 떨쳐일어서자”고 주장했다.

또 민중운동연합시세보고에서 대한광학노조 문화부장 김

영수씨는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인상 규탄 부총장실 집기등 끌어내

‘등록금투쟁 및 1학년 자치협의회 경과보고대회’가 지난18일 오후1시 도서관에서 학생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공과대학 생활장 박상진(토목4)은 1학년, 3학년의 등록금 27%인상은 부당하며 오늘(25일)1시 학교측과 긴급회의를 정적 요구

했다.

또한 1학년자치협 경과보고에서 자치협위원장 신현수(야간강좌 경제1)은 학교측의 2.2% 환불은 기만적 행위라며 작년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9.8%인상분의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신청서를 소각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후 학생들은 부총장과 총무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후2시35분경 부총장실과 총무처장실의 집기등을 모두 꺼내 불상앞에 정렬해 놓았다.

학자투 증폭 시기는 지금

재단혁신-민중투쟁 자칫하면 ‘공멸불’

5월 메이데이 투쟁, 광주총회시수들의 정치투쟁을 앞둔 가운데 학원사투쟁(학자투)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8일 부총장·총무처장실 집기 반출 이후 재단혁신투쟁의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중선거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어려운 실정인데다 지난 3월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예·결산공개 및 학자투8개항시행등 6개항 합의내용의 조속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드러난 재단 혁신을 위한 등록금 환불투쟁은 단히 복지사안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인상으로 전체 학생

들의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당면한 학자투 해결과제로는 △재단전입금의 확보 방안 △하내 각 주체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교수 직선 총장선거의 보장 △재단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 ‘계약 사립학교법’ 폐지문제등이 있다.

특히 지난3월 임시국회에서 개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수 임명권을 총장에게서 재단으로 이양하고 대학 예·결산에 대해 자문위원을 설치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재단 간섭이라는 제도적 틀을 보강해 준 학법으로 학원의 자주성 학문·사상의 자유 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습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올 상반기 학자투의 전반적 기초는 전체적인 대중투쟁과 유연한 상충교섭이 결합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혁신=민중선거’라는 기본적인 원칙속에서 전개되어야 할 상반기 학자투의 기초는 현 22대 총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5월말 비상학생총회 개최와, 이를 통한 복지사항 증진의 재단혁신 투쟁이 시기상 늦추어지는 문제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일 사안에만 빠지는 오류를 범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재단이사회가 5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재단전입금 확보 및 민중선거에 관한 상

학생회비 납부율 91.8% 예산, 총학20%-단대연합62% 될듯

90년도 제1학기 학생회비납부율이 전체 등록인원의 91.8%인 4천1백20인5천원이 걸렸다.

이에따라 총대의원회는 지난 13일 예산분배소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까지 학생회비 분배를 마칠 예정이다.

학생회비 예산편성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어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야간강좌총학생회, 단과대연합등으로 나뉘어 오는 26일 대중 정기총회에서 통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예년에 기준하여 올해 내정된 분배원칙을 살펴보면 총학 20%, 여중과 대중에 각각 5%, 동원이 8%, 야중 및 단대연합 62% 등이 되고있다.

올 투쟁방향 결의 학대표회의 27일 개최

학생대표회의가 제22대 총학추대로 오는27일 오후 4시 학생회관2층(학생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대표회의는 총학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90년 총노선에서 학자투와 정치투쟁에 관한 결의가 있게된다. 또한 5-11일 메이데이 총파업결의 및 구체적인 투쟁방향이 나올 예정이다.

논문상 존폐 위기 1편 응모...입상없어

본사제정, 제8회 학생논문상에서 입상작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논문상은 지난 9월 마감결과 응모편수 마저 단 1편에 불과, 존폐의 위기를 맞

총장서리의 수도

○...신중장서리가 물총장 서리라는 풍문이 학내에 나돌고 있다는데.

지난16일 재단 예산심의 소위 석상에서 신중장서리가 스님이사로부터 호연중증(?)과 아유를 받았다라는 풍문이 퍼다한 것이 그 이유로 밝혀져.

지난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 국회로비가 각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를 접하며 총장서리의 수단이 결코 무관하지

이준근 복싱대표선발

본교 복싱부 이준(체육4)군이 제11회북경아시아게임 복싱 국가대표선수로 최종선발됐다.

張漢基교수 기증 향나무등 1백그루

문화대 張漢基(연극영화)교수가 향나무, 모과나무등 1백부를 본교에 기증했다.

지난 58년 9월 본교에 부임, 후진양성에 힘써온 張교수는 문화분위 조성과 환경미화에 보탬이 되고자 평소 기르던 정원수종 향나무 50그루, 모과나무, 살구나무 등 모두 1백그루를 기증했는데 관제과에서는 이를 보내달라는 조경할 예정이다. 한편 申國社총장서리는 지난 23일 오전10시 정원수 1백그루를 헌수한 張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는26일 대중 출범식 거행 총학 집행부 인준 - 예산분배

서울캠퍼스 총대의원회 출범식이 총대의원회사무보고와 총학 집행부인준, 예산분배등과 등을 안고 오는26일 오후4시30분 중앙당에서 있게된다.

지난 19일 있던 ‘중앙집행부 회의’에서는 출범식 일정 확정

과 함께 강사특별위원회(위원장·심현신·사회대의원·사회3)를 구성해 예산·사업감사실 등을 논의하게 되며, 또 예산 분배소위원회는 각 중앙기구대표 1인씩으로 구성, 이날 절차를 밟게된다.

日新又日新 해야 할 동약은 日舊又日舊 진행중...

민은 앓음듯... 이에 본 회전문대 자"지난 해 부정입학의 전모는 공허하게 사라진 채 갖가지 총장서리만 떠돌아다니는 스님이사들은 언제나 스님이사 필연지 시절이 하 수상합니다...

日舊又日舊

악인들의 속을 확 풀어주었다는... 日舊又日舊

○...일마진 ‘동약판 배배옹’이 나타나 모처럼만에 등

이 알찬 결실이 있기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FACE 미인회화 · 이해중생활영어 · EEC회화 · SBS생활영어 · 성문기본영어 · 영어실력기초 · 성인기초영어 · Man to Man 기본영어 · 성문종합영어 · Vocabulary 영어순해 · Weekly Time · AFKN청취 · L/C청취 · TOEFL · C.G.F.N.S · AFKN 통대대학원 · JDC日本人 회화 · 日本語문법 · 스크린 日本語 NHK 청취 · 부록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회화 · 프랑스어회화

종각제일은행 맞은편 7340-114 (대)

종로외국어학원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영어사학원

TOEIC 강좌개별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Word Power ● 일본어 초·중·고급 ● TOEFL L.C ● 영어 문해 ● 일본어 초·중·고급 ● Voc 2200 ● Time ● Grammar ● 영문 종합영어 ● 영어실용영어 ● 영어회화 ● AFKN 청취 ● 영어순해 ● 스크린 ● 성문 기본영어 ● 미인회화 ● 중국어 초·중·고급 ● 일본어 회화 ● 영어회화

개강 5월 1일 수시등록

피고대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4395~7/5081~2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피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중에 외국어 정복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피고다 외국어학원에 다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시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하루 성취감을 주자는 피고다학원의 모든 강의를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정복의 자신감을 준다.

종로2가 피고대공원 건너편 현빌딩 274-4000, 274-6821-2

I CAN DO

아기, 티, 야, 카

광고대행사 **나래기획**

